

# 사야카[沙也可] 시기에 나타난 유학사상 용례

후지와라 다카오\*  
번역 : 박규태\*\*

1. 서론
2. 사야카의 시기에 관하여
3. 사야카 시기에 있어 『모하당문집』 편자 및 개정자의 유학용례와 유사한 사례
4. 사야카 시기에 있어 유학용례
5. 결론

## 요 약 문

임진왜란 때 침공해 온 일본군 중에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군에서 조선군에 투항한 왜장 사야카[沙也可]는 전공에 의해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이름과 '정헌대부'라는 고위 직계를 하사 받았다. 사야카는 66세까지 전선에 나섰고, 평시 유학을 수학하여 많은 저술과 시문을 남겼다. 따라서 사야카의 유문 중에는 유학적 용례가 많다. 그 중 『모하당문집慕夏堂文集』의

---

\* 藤原隆夫,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원

\*\* 朴奎泰, 한양대학교 교수

시문에 5편의 단시와 <술회가(述懷歌)>라는 장편 서사시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사야가의 시문을 통해 그 유학적 사고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거기서 유학적 용례가 나타나는 것은 <술회가>뿐이다. 이 <술회가> 시문 232행 중 41행에서 유학적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모하당문집』의 편집자 김한조(金漢祚)와 개정자 이가순(李家淳)에 의해 문식된 흔적이 짙은 14행을 제외한다면, 사야가의 독자적 사고를 보여주는 ‘의義’ 관련 용례는 ‘춘추대의春秋大義’, ‘진력우왕민盡力于王民’, ‘의백충혼義魄忠魂’ 등에서 나타나며, 투항 직후의 시점에 있어 신하의 충의를 나타내는 ‘의’로부터 후년에는 점차 국가·사회·민민에게 몸을 바치는 광의의 ‘의’라는 사고방식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유학적 용례, 편집자 김한조(金漢祚), 개정자 이가순(李家淳), 술회가(述懷歌), ‘의義’라는 사고방식

## 1. 서론

임진왜란이 종지부를 찍은 뒤 사야카는 주거지가 있던 우록동(友鹿洞) 뒤편 약 1.5km 상류 지역 백록동(白鹿洞) 서원의 종주(宗主 禹成范 문중<sup>1)</sup>)을 찾아 유학의 가르침을 받는 한편, 전란에서 죽은 아들(扨純 부부<sup>2)</sup>)를 그리면서 유학 논의에 몰두했던 듯 싶다. 사야카는 가문 총사(總帥)로서 무술 연마에 힘쓰는가 하면 저녁에는 유학 서적을 펴 읽으면서 우성범(禹成範)을 우러러볼 만한 스승으로 삼아 그 내용의 진위에 관해 묻곤 했다.<sup>3)</sup> 이 점은 쌍방의 사료에서 그 편린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항복한 왜장이 되었을 때 ‘효유서(曉諭書)<sup>4)</sup>’와 ‘강화서(講和書)<sup>5)</sup>’를 남겼다.

1) 『白鹿洞淵源』, 丹陽禹氏判書白鹿宗中, 2002, 癸未.

2) 前掲書, 『白鹿洞淵源』, 6~7쪽.

3) 前掲書, 『白鹿洞淵源』, 7쪽.

그런데 이것들이 『모하당문집』<sup>6)</sup>을 펴낸 6대손 김한조<sup>7)</sup> 및 개정자인 이가순<sup>8)</sup>에 의해 상당부분 문식된 것이었음은 줄고 “사야카 서간문의 유학사상[沙也可の書簡文の儒學思想]”<sup>9)</sup>에서 지적한 바 있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사야카 시문<sup>10)</sup>에 있어 그의 유학사상을 찾아내는 작업은 이에 비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간문의 경우는 그 편자와 개정자의 용례를 문체로 추출함으로써 그 용례문의 문체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 용례문과 유사한 문체를 서간문에서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시문의 경우는 해당 용례가 문장보다는 어구에 존재한다든지 혹은 구체적인 말보다는 추상화된 말 또는 비유라든가 암유<sup>暗喩</sup>로 표현되어 있어 명확한 유학용례를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이 때 사야카 시문은 <잉방시<sup>仍防詩</sup>><sup>11)</sup>·<남풍유감<sup>南風有感</sup>><sup>12)</sup>·<우흥<sup>寓興</sup>><sup>13)</sup>·<우회<sup>寓懷</sup>><sup>14)</sup>·<도취의사<sup>悼崔義士</sup>><sup>15)</sup> 등의 단시<sup>短詩</sup>와 <술회가<sup>述懷歌</sup>><sup>16)</sup>라는 230행의 장편시가 한 편 수록되어 있다.

사야카의 자손 경원<sup>敬元</sup>이 쓴 ‘행록<sup>行錄</sup>’<sup>17)</sup>에 의하면 사야카가 당시 과묵했으

- 
- 4) 金海金氏宗會, ‘曉諭書’, 『慕夏堂文集』, 1996, 35쪽.
  - 5) ‘講和書’, 『慕夏堂文集』, 37쪽.
  - 6) 『慕夏堂文集』.
  - 7) 金漢祚, 『慕夏堂文集』, 154쪽.
  - 8) 李家淳, 『慕夏堂文集』, 181쪽.
  - 9) 줄고, 『沙也可의 儒學思想用例』, 『儒學研究』,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1, 321쪽.
  - 10) <述懷歌>, 『慕夏堂文集』, 88~106쪽.
  - 11) <仍防詩>, 『慕夏堂文集』, 106쪽.
  - 12) <南風有感>, 『慕夏堂文集』, 106쪽.
  - 13) <寓興>, 『慕夏堂文集』, 107쪽.
  - 14) <寓懷>, 『慕夏堂文集』, 105쪽.
  - 15) <悼崔義士>, 『慕夏堂文集』, 109쪽.
  - 16) 前掲, <述懷歌>, 『慕夏堂文集』.
  - 17) 『行錄』, 『慕夏堂文集』, 159~164쪽.

나 항상 시를 음미했다고 한다. 따라서 그의 시가에 관해 평한 논자들이 시작詩作의 완성도를 논할 경우, 이전에는 “졸렬한 표현으로 인해 예술성이 낮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근래에는 “단시인 시조時調는 불규칙하지만 <술회가>는 일정한 규칙성을 지녀 문학사상 명확한 지위를 점한다.”고 하여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18)</sup> 또한 사야카는 일본사회에서 자라난 후 조선에 건너왔기 때문에 일본 전란기 사회를 ‘무상無常’한 것으로 묘사한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sup>19)</sup>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이와 유사한 문구가 그의 시 속에 나타나기도 한다. 나아가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일본에는 원래 무사출신이지만 출가한 후 수많은 전란을 목격하면서 유명한 가인(시인)이 되어 많은 작품을 남긴 사이교[西行]<sup>20)</sup>와 같은 인물도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시문 문구는 통상 글을 농축적으로 압축하여 표현되어 있으므로 상기 단시편에서는 유학적 용례가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장편시인 <술회가>에서 단편적이거나 문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줄고에서처럼 『모하당문집』 편자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 용례를 제외한 그 밖의 유학적 용례를 분석해 본 결과, 역시 사야카의 사고에는 ‘의義’와 관련된 용어가 중심을 이루며, 처음에는 신하로서의 은의를 포함한 ‘의’ 발상으로부터 점차 국가와 사회와 민민에게 자신을 바치는 큰 ‘의’를 설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귀화인으로서의 무인 사야카는 죽을 때까지 유학 공부를 실천하면서 그런 유학적 영향이 짙은 글들을 남겼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사회에 있어 희유한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야카의 ‘의’ 관념에는 그가 자라난 당시 일본사회의 사고방식 내지 무사적 사고방식이 스며들어가 있었음은 말할나위 없다. 헤이안

18) 가령 權寧徹, 『모하당 시가의 연구』, 『협성여대 연구논집』 6, 1967, 27~76쪽; 尹榮玉, 『모하당의 문학』, 『民族文化論叢』 23, 174쪽.

19) 梶原正昭, 『平家物語』, 1984, 16쪽.

20) 後藤重郎 校注, 西行, 『山家集』, 學燈社, 1982, 435~463쪽.

[平安]시대 이래 '의'리는 글자의 용법이 일본 무사들에게 특별한 존송을 받아 왔는데, 이를 배경으로 하여 후에 사야카가 투항한 다음 유학 수학과정에서 조선유학에서의 '의' 개념과 융합하여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보인다.

## 2. 『모하당문집』에 나타난 사야카의 시가에 관하여

### 1) 사야카의 시가에 관한 학설사

사야카의 시문에 관한 연구사를 성립순으로 열거하자면, 최초의 것으로 1966년에 나온 이동영의 『모하당 연구』<sup>21)</sup>를 들 수 있다. 이어 1967년 권영철의 『모하당 시가연구』<sup>22)</sup>와 1968년 정중환의 『모하당 김충선의 술회록』<sup>23)</sup>이 나왔다. 그 후 1974년 진동혁의 『모하당가고』<sup>24)</sup> 및 이보다 훨씬 늦은 1990년 윤영옥의 『모하당 문학』<sup>25)</sup>이 발표되었다. 이상 포함 5인의 문학연구자들에 의해 논해진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체 및 형식적 측면에 관해 살펴보자면, 먼저 국문학사상 가시문학의 형식으로 임진왜란 전후까지의 형식에서는 3,4조가 우세했으나 그 후 4,4조로 발전되었다. 사야카의 가시는 전체 가운데 3,4조가 67%이고 2,3조를 합쳐 약 70%가 전기적 특징을 보여준다. 때문에 사야카의 〈술회가〉는 임진왜란 전후 작품의 경향을 띤 것으로 말해져 왔다.<sup>26)</sup> 사야카 작품의 장점으로는, 인륜도덕의 숭고

21) 李東英 「모하당 연구」, 『靑丘文學』 6, 1966.

22) 前掲書 權寧徹 「모하당 시가연구」.

23) 丁仲煥 「慕夏堂 金忠善의 「述懷錄」」, 『樂山 金廷漢先生 頌壽記念集』, 1968.

24) 秦東赫 「慕夏堂歌考」, 『수도여사대 논문집』 6, 1974.

25) 尹榮玉 「慕夏堂文學」, 『民族學論叢』 23, 1990, 174쪽.

26) 前掲 權寧徹의 글.

함과 청렴절의清廉節義의 존승을 꿈꿀 수 있으며 군자학君子學의 장려가 두드러진다. 또한 임진왜란기 귀화인이 남긴 유일한 작품이자 유례를 찾기 힘든 장편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sup>27)</sup> 이주국의 국어가 시國語歌詩로 〈술회가〉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야카는 조선어와 조선문물을 일찌감치 습득했다. 가사도 잘 읊고 문장 읽기도 습작기를 훨씬 뛰어넘었다.

하지만 작품의 결점도 많다. 예컨대 작품 철자법이 어지럽고 인간이 발하는 애상적 감정과 진실을 잘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무인의 작품인 관계로 기교면에서의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사실시조 및 시조 형식의 창작에서는 엄밀히 말해 실패작이라는 평가도 있다.<sup>28)</sup> 이처럼 서술과 서정 모두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체로 귀화인 문학이 회소가치를 가지며 도덕적 인륜과 청렴성에 있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국인으로서 언어를 습득하고자 애쓴 점은 인정받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술하겠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야카가 수십만 원정군 중에서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조선사회 유학문화의 고상함을 높이 평가하면서<sup>29)</sup> 매우 긍정적으로 조선사회에 편입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가 일본 사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교양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 그리고 약 백여 년간에 걸쳐 전란이 계속된 일본사회에서도 노계盧溪처럼 전란을 묘사한 문학과 문화 전통이 있어서<sup>30)</sup> 그것들이 사야카 작품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sup>31)</sup>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7) 前掲, 李東英·秦東赫의 글.

28) 前掲, 尹榮玉·秦東赫·權寧徹의 글.

29) 前掲, 〈曉諭書〉.

30) 前掲, 『平家物語』 및 『山家集』.

31) 前掲, 〈述懷歌〉

## 2) 사야카 시가의 개관

당시 조선사회에서 전란기에 시가를 다수 남긴 노계(盧溪<sup>32</sup>) 등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물며 문인도 아닌 무인이 시문을 남길 만한 여력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야카는 조선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유학자들이 전시기에 의병으로 활약<sup>33</sup>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투항 후 점차 이 유학자들의 유학적 교양을 적극적으로 섭취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유연한 선진적 성향을 엿볼 수 있을 듯싶다.

사야카의 작품으로는 오언율시인 〈잉방시〉<sup>34</sup>와 오언절구인 〈남풍유감〉<sup>35</sup> 및 세 편의 사설시조와 엽시조 형식인 〈우흥〉<sup>36</sup>·〈우회〉<sup>37</sup>를 비롯하여(여기에 권영철은 〈술회가〉에 나오는 〈우회〉를 들고 있다), 원래는 사야카가 울산에서 함께 싸웠던 울산군수 김대허(金大虛)의 문집에 실려 있던<sup>38</sup> 한 무인에 대한 추도시인 〈도취의사〉<sup>39</sup>와 그의 생애 만년에 쓴 가사 형식의 장편서사시 〈술회가〉<sup>40</sup> 등이 있다.

이상에서 들은 7편의 작품 중 처음에서 6편까지는 단시이며 남은 한 편은 장시이다. 내용면으로 보자면 이상의 시가들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전장 및 전투와 관련된 시가이고, 둘째는 고향과 일가를 그리워하는 시가이며, 세 번째는 '모하의 마음, 동방예의문물의 사회풍속'을 예찬한 시가이다.

32) 『盧溪先生文集』(국역 노계집), 『壬申倭亂 史料叢書 歷史編』10, 1999, 354~374쪽. 노계의 대표적인 전란시로는 〈船上嘆〉와 〈太平詞〉가 유명하다.

33) 前掲, 尹榮玉의 글.

34) 前掲, 〈仍防詩〉.

35) 前掲, 〈南風有感〉.

36) 前掲, 〈寓興〉.

37) 前掲, 〈寓懷〉.

38) 金大虛, 『襄武公實記』, 11~21쪽.

39) 前掲, 〈悼崔義士〉.

40) 前掲, 〈述懷歌〉.

3) <술회가>에 관하여<sup>41)</sup>

## 가. &lt;술회가&gt;의 조망

이 시는 사야카가 조선에 온 때부터 생애를 마칠 때까지 무인으로 참가한 전투 즉 임진왜란(7년 전쟁), 만주국경 수비대 시절, 이괄의 난, 을묘乙卯사변, 병자호란 때의 전투체험 및, 그 사이사이 일가 지도자로서 스스로를 연마한 백록당서원 우성범 밑에서의 유학 연찬을 통해<sup>42)</sup> 시문을 비롯한 여러 기록들을 남겼는데, 이런 활약을 70세 때 장편 서사시로 읊은 것이 바로 <술회가>이다.

큰 흐름을 보자면, 조선에 건너오기 이전부터 동경했던 동방 성인 나라의 의 관 문물과 예의 풍속 등을 3대 이상 여러 나라에서 계승하는 중화中夏 및 소중하小中夏의 이상향으로 묘사한 세계는 <술회가>에서 양陽으로서 읊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술회가>에는 끊임없는 전역戰役을 통해 신하로서 나라를 떠맡치는 짙은 음영의 허망함과 비애와 무상감을 토로한 상반된 음의 세계도 묘사되고 있다.<sup>43)</sup> <술회가>는 이와 같은 2대 조류가 나타내는 거대한 하나의 두루마리 그림 같은 시라 할 수 있다.

## &lt;표 1&gt; &lt;술회가&gt;의 구성

文段	行	本 文	文段	行	本 文
—	1	嗚乎余之平生 亦爲兇險	7	7	年少無識之余身 扨爲先鋒將
	2	廣濶天下 何以爲避之		8	非義興師之意 心中雖知之
	3	南蠻左衽鄉 生長于鳩舌之風		9	東土禮儀之邦 欲爲一玩
	4	中夏之佳麗文物 願一見之		10	諒若欣然杖劍下 爲先鋒將之時
	5	明天知此意 鬼神爲之感動		11	以誓不得還 可決於意中
	6	何如之清正 東伐朝鮮時		12	扨辭先墳 離別親戚

41) 前掲, &lt;述懷歌&gt;.

42) 前掲, &lt;白鹿洞淵源&gt;.

43) 前掲, &lt;述懷歌&gt;.



文段	行	本 文	文段	行	本 文
	13	七兄弟兩妻 一時盡棄		45	其時節度使 爲之喪啓
	14	愁心非意 無之云則虛言		46	玉音一下 使之乘阻上來
	15	行軍鼓一聲 卽爲發船矣		47	欲奉王命 蒼黃入京
	16	劍戟如秋霜 旌旗蔽白日		48	罔極之聖恩兮 逮于此微軀矣
	17	扣柁乘流 待以順風		49	謹奉天教 而歸來轅門
	18	雄心秀出 壯氣亦滔滔		50	一心未懈 欲效報恩
	19	拔持長劍 依立于船上		51	嗟乎明朝兵 爲賊謀之所陷
	20	天地間壯氣 唯我而已		52	提督大怒 欲斬我之元帥
	21	巍然大板城 嵯峨乎海中		53	忙呈軍令狀 伏地而告白
	22	壯哉大馬島 東國在此		54	講斬倭將頭 願續元帥之命
二	23	黑龍歲黑蛇月 始得渡海		55	橫提三尺劍 突入于甌城
	24	耳聞之朝鮮國 目見之此處也		56	時值二更 鼓喊衝突
	25	回顧山川 周察人物		57	提督大怒 欲斬我之元帥
	26	衣冠濟濟 禮樂跄跄		58	忙呈軍令狀 伏地而告白
	27	康衢時烟月乎 太古時峙乎		59	講斬倭將頭 願續元帥之命
	28	非三代之風俗乎 東魯至治此也		60	橫提三尺劍 突入于甌城
	29	大中夏如此乎 小中夏可羨		61	時值二更 鼓喊衝突
	30	禮樂彬彬 民物亦燦爛		62	匹馬單槍 敵之者伊誰數
	31	中心恍惚 如狂如癡		63	數千級賊首 霎時間斬戮
	32	用夏變夷之心 藹然湧出		64	大都督將臺下 再拜而獻之
	33	手下三千兵 無非梟雄者		65	明將大喜 上達天聽
	34	皆云他國兵來 而人民騷動		66	資憲階賜姓名 一時特下
	35	急書晚諭文 沿路揭榜		67	休哉聖恩 深之罔極
	36	一邊作講和書 投托于東國	三	68	此身雖爲屑 豈報此恩乎
	37	孔孟之道德禮儀 親皆見之		69	竭忠報恩之道 必是沒策
	38	拋棄侏儒之俗 漸進揖讓之風		70	嗟乎我之聖君 播遷于義州
	39	繞于幽谷之鳥 似遷于喬木		71	一國臣民 誰不痛哭
	40	入夜經之盲者 似見日月		72	誓效死力 破滅賊陣
	41	侍東邦聖君 享萬古泰平		73	而報君父之讐後 將設會宴
三	42	更鼓勇略 而收拾壯氣		74	回顧東國之兵器 少無精妙
	43	甌城一戰 斬首屢千級		75	持此兵器 安可破賊
	44	是伊誰之功 皆聖上之德		76	烏銃與火藥法 教訓各陣

文段	行	本 文	文段	行	本 文
	77	經一二箇月後 做出一等兵器		109	固辭不受 終乃還納
	78	橫行八載 快獲勝戰		110	欲爲守禦廳屯田 而補軍糧焉
	79	捷獻九重後 因爲奠居嶺南矣	五	111	壬甲兩亂平定後 不知再有國難
	80	仁廟朝甲子歲 逆适謀叛時		112	放心修志 穩臥于山中矣
	81	其一封凶檄 忽施威脅		113	不意北方之憂 每年復起
	82	渠雖吼喝 吾豈應之		114	此朝家之不幸 而賠乙夜之憂
	83	裂破檄書 而梟首适使		115	因見天門 問以防憂之策
	84	六日焚香祝天 願請討賊平亂		116	余雖無才 豈不效死竭忠乎
四	85	元凶就殲 餘黨猶在		117	四拜于彤階 奏進所懷
	86	暴悍兮徐牙之 倭中之飛將		118	而自願十年仍防庶幾蕩滌北方之憂
	87	東西奔馳作亂 而爲國之大患		119	歸來楓階下 復命之際
	88	慶尙道監兵營 雖爲四方發捕		120	於後苑引見 賜下盛饌
	89	誰能犯接 而何以擒之乎		121	盤中點點珍羞 味味榮寵
	90	朝令急下 使之斬捕牙之		122	杯裏盈酒 斟酌思波
	91	寧能未捕 敢拒王命乎		123	況此二品正憲 非徒崇資
	92	以單騎遂踏 而追至于金海		124	且教旨中八字明書 煌煌有耀
	93	嶺南藪深處 逢着牙之		125	顧余外國賤俘 其如此榮寵耶
	94	做出奇計 欲以智擒之		126	反爲盛滿之戒 抽出于胸中
	95	初以溫言慰勞 且以真情開諭		127	而卒富貴不祥之語 以古言聞之矣
	96	旨酒相勸 盡日痛飲後		128	投托于東土 欽慕禮儀
	97	醉倒不省人事 先奪其寶劍		129	而遣子孫 爲中夏之人
	98	號令軍卒 縛致麾下焉		130	則富貴念外 功名亦意外也
	99	渠雖飛將 昇天入地乎		131	今日之富貴功名 千古所罕有
	100	快除邦憂 獻誠于九重	六	132	辭天階 而歸鄉里
	101	是宗社之幸 而國家之福也		133	於私分惶恐 晝屑未安矣
	102	以聖上之神功 已爲殲賊平難		134	邦厄未盡 時運不幸
	103	歷歷思量 非我之功矣		135	丙子歲十二月 清兵大驅
	104	惶恐兮田土賜牌 因傳教而下		136	都城陷沒 大駕播遷
	105	恩援亦無涯 感泣焉無窮		137	却掠人民 朝野散亂
	106	盡力于王民 是臣子之職分		138	而心神恍惚 肝腸欲裂
	107	以牙之之一顆頭 豈可以受賞乎		139	催促行李 以匹馬馳來
	108	余敢以臣子 肯受此民田歟		140	賊陣雲屯 殺氣蔽天

文段	行	本 文	文段	行	本 文
	141	直抵慶安橋 探察賊勢		173	春秋大義姑捨 舊恩安敢忘之
	142	則強弱不敵 亡在朝夕		174	數千載魯仲連 其不耻歟
	143	視手于蒼天 誓決死生		175	清陰公堂堂大義 裂破講和書
	144	手下隨兵 只百五十人也		176	吳校理尹校理 及洪掌令之斥和疏
	145	高舉長劍 更鼓勇猛		177	秋霜凜凜 丹忠貫日
	146	而左衝右突 如刈麻廝殺		178	一相公三學士 有光于天下
	147	數千萬胡兵 卽劍鋒之草葉		179	萬古綱常昭在 千秋黨讖趨也
	148	自卯至辰 斬首屢萬級		180	顧此身死後 雖九原之魄
	149	賊屍如山 血流成川		181	隨行四君子 欲祭義魄忠魂
	150	斬馘胡兵之首 不可勝計		182	英雄壯士一寸肝腸 豈不挫折
	151	割死者之鼻 而入于戰俘		183	平生一片慕夏心 付托于誰手乎
	152	意氣騰騰 遂踏胡陣		184	怒髮衝冠 憤氣騰天
	153	雖億千萬兵馬 熊以一身當之矣		185	蒼天無語 曉月淒涼
	154	天意厭之 鬼神猜之		186	哀心悲懷 伴侶而歸來
	155	不意火藥庫失火		187	天地杳然 流淚掩前
	156	兵器蕩盡 而勇氣挫折		188	於此於彼間 既爲平定禍亂
	157	雖曰英雄 全沒用武之地也		189	而大駕還御 臣民稍靜
	158	回顧陣勢 偵探賊情		190	是莫非天運 哀痛奈何
	159	必是孤軍弱卒 而無強弩末由之者		191	更驅匹馬 歸來友鹿村也
	160	寧爲破陣 而不如扈從聖君		192	謝別塵世 入于山中
	161	仍迴馬首 望幸在所而進發		193	無情兮山川 有意兮白鳴
	162	得達于南漢 欲入城門之際		194	黃鶴峰置之傍 尋入仙遊洞
	163	胡兵圍繞 講話旣成		195	李謫仙安期生 曾遊乎此處哉
	164	聞之斷腸 見亦傷心		196	特立兮鳳巖 亦爲奇異
	165	以長劍擊地 又投賊鼻之戰俘		197	蕭韶九成之聲歟 西周岐陽在此歟
	166	痛哭而退出 胸膈塞焉		198	猗哉鳳鳥之名 亦爲文明
	167	嗚呼神宗皇帝 已救東國		199	而紫陽及白鹿洞卽朱夫子杖履之地
	168	東國扁小 全母報恩之道		200	趨歟道德場 相歟符合
	169	胡兵充斥 神州陸沈		201	是餘之後孫 豈不出講學人哉
	170	到今思之 白骨難忘		202	沐浴于寒泉 灑風于三聖山
	171	其何以背之 事犬羊天地乎		203	而石徑植杖 歸來于慕夏堂
	172	禮義東方之貫號至于今日歸於虛地		204	稚子候門 美酒樽盈

文段	行	本 文	文段	行	本 文
	205	傾二三杯後 悲懷自出		219	西山日迫 年齡七十老翁
	206	哀哉一介賤夫 寄在萬里殊方		220	占得身後地 而定萬年幽宅
	207	罔極兮三朝恩 疊疊蒙被		221	卜居于友鹿村 而弄白雲明月
	208	白骨雖成土 豈報此恩歟		222	義皇氏之民歟 葛天氏之民歟
	209	遺有子孫 而爲聖人之氓		223	生逢堯舜而自樂 有子孫如此
	210	世世相傳忠孝 將以報國恩		224	平生所願 箇箇成就
	211	男女子孫成行 而盈于眼前		225	南風有時吹 回想故國
	212	爾輩後生 詎識聖恩乎		226	先塋平安歟 七兄弟無事歟
	213	聽餘之此言後 誓圖銘心不忘		227	至親骨肉 生乎死乎
	214	勿貪榮達 祇尙身體焉		228	看雲事春夢 何時無之
	215	偏出家訓 遺戒于子孫		229	不忠於國家 不孝於私門
	216	作慕夏堂刻板 以平生之願揭在		230	覆載間一罪人 余身外抑有之哉
	217	孝悌忠信爲業 禮儀廉恥成風		231	畢竟世上兇險之命
	218	子子孫孫相傳 務以和睦		232	疑吾一人獨在

## 나. <술회가>의 구성

선행연구에 의하면<sup>44)</sup> <술회가>는 “크게 서사序詞-본사本詞-결사結詞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 “서사는 제1문단과 제2문단”으로 시야카가 “조선에 들어와 귀화하기까지의 내력”이 묘사되어 있다. 한편 “본사는 제3문단에서 제6문단까지”이며 “삼조삼란三朝三亂 시기의 내력”을 적고 있고 “결사는 제7문단과 제8문단”으로 “한거閑居와 소회所懷 및 고향에 대한 상념을 말한 부분”으로 각각 자리매김되어 있다. 또한 이 밖에 “또 하나의 분류방식으로서 기승전

44) 前掲, 權寧徹의 글.

걸起承轉結의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보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즉 “제1문단의 기起는 일본에서 태어난 이후 조선에 상륙하기까지의 심회를, 제2문단의 승承은 투항한 경위 및 귀화할 때의 감회를, 제3문단에서 제6문단까지의 전轉은 삼조삼란에서의 활약과 그 내력을, 제7문단과 제8문단의 결結은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거와 소회 및 고향에 대한 상념을 적고 있다.”고 분석한다. 필자도 이런 분류방식에 동감하지만, 여기에는 본고가 지향하는 『모하당문집』에 있어 편집자 김한조 및 개정자 이가순에 의한 문식과 윤색에 관련된 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4) 사야카 시가와 사료의 관련성 및 그 시대적 배경

『모하당문집』에는 사야카의 시가가 6편 게재되어 있다. <잉방시>·<남풍유감>·<우흥>·<우회>·<도죄의사>·<술회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중 <술회가> 이외의 시문에 관해서는 유학적 용례가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술회가>만 검토하기로 하겠다.

<술회가>에 관해서는 먼저 구성의 측면에서 보건대, 전술했듯이 서사·본사·결사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서사는 제1문단(일본에서의 출생 및 조선 상륙까지의 심회)과 제2문단(투항의 경위 및 귀화시의 양상)에 해당하며, 본사는 제3문단(임진왜란에서의 전공과 위계 및 성씨 수여), 제4문단(이괄의 난, 이괄의 副將 徐牙之의 진압), 제5문단(만주국경 수비대 시절 및 正憲 紱階), 제6문단(병자호란, 胡族의 난, 강화조약과 좌절감) 등에 걸쳐 있으며, 끝으로 결사는 제7문단(귀향·한거·자손들에 대한 가훈) 및 제8문단(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술회가>에 영향을 끼친 사료에 관해 살펴보자면, 이 시는 사야카가 70세 때 쓴 것으로 각 단락에는 종래 사야카가 기술한 서書·기記·소疏·서간문·자손들에게 쓴 글 등이 각각 기술되어 있다. 거기서 문단별로 관련성이 깊은 유문을 들자면 다음 <표 2>와 같다.

## 〈표 2〉 문단별 관계사료

文 段	史 料 名
1	『慕夏堂記』·『曉諭書』·『賜姓名謝恩疏』·『講和書』·『鹿村誌』
2	『慕夏堂記』·『曉諭書』·『講和書』
3	『蘆溪詩』·『謝嘉善疏』·『龍蛇事實摭錄』·『金誠一書簡』·『賜姓名謝疏』
4	『還賜牌 疏』
5	『仍防疏』·『謝正憲疏』·『還賜牌 疏』·『家訓』
6	『鹿村誌』·『漢書龍蛇事實後』
7	『鹿村誌』·『家訓』·『里約』·『寓興』
8	『南風有感』

또한 이 〈술회가〉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동시대 시인인 송강 정철<sup>45)</sup>과 한음 이덕형<sup>46)</sup> 및 노계<sup>47)</sup>를 들 수 있다. 송강은 단가와 가사의 대가이자 애국 사상을 묘사한 시인이며, 이덕형은 시문을 많이 남기는 한편 도의정都議政이라는 고위 관직을 지낸 정치가로서도 이름 높다. 또한 노계는 사야카와 마찬가지로 전장에서 싸우면서 전란 체험을 한 애국시인으로 유명하며, 〈술회가〉에서도 여러 곳에 노계를 상기시키는 “罔極之聖恩”라는 시구가 등장한다. 사야카가 농후한 전시 체험과 아울러 유학적 색채가 짙은 시문을 남긴 배경에는 조선에 있어 무장으로서의 전시체험 및 유학 수학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가 조선에 오기 전 22세까지 일본인으로서 겪은 당시의 전시체험 및 전국시대의 사회적·문화적 인식에 큰 영향을 준 『헤이케모노가타리』<sup>48)</sup>의

45) 『松江 鄭澈』, 『壬辰倭亂史料叢書』, 國立晉州博物館, 亞細亞文化社, 2000, 128쪽.

46) 『漢陰 李德馨』, 『壬辰倭亂史料叢書』, 國立晉州博物館, 亞細亞文化社, 2000, 128쪽.

47) 前掲, 『蘆溪先生文集』.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가미쿠리[鎌倉]말기에서 무로마치[室町]말기 즉 전국시대까지 일본 각지에서 비파법사[琵琶法師]들에 의해 설화처럼 귀에서 귀로 전해진 헤이케[平家]의 활약과 몰락을 묘사한 작품으로, ‘제행무상[諸行無常]<sup>49)</sup>과 같은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사회적 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쟁의 덧없음을 표현할 때 ‘무상<sup>50)</sup>이라는 말이 당시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다. 사야카의 시문에도 이런 ‘무상’에 근접하는 의미의 시구로 ‘무정無情<sup>51)</sup>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와 같은 『헤이케모노가타리』와 더불어 그 배경에 원래 무사로서 큰 전란을 경험하면서 승려가 된 유명한 가인 사이교[西行]<sup>52)</sup> 및 그의 저서 『산가집[山家集]<sup>53)</sup>도 간과할 수 없다. 당시 일본에서는 시 하면 대부분 31음절의 단시인 와카[和歌]를 읊었다. 또한 사이교는 『헤이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유명한 인물들을 자신의 시가 속에서 읊었는데, 사야카 또한 이런 식으로 전쟁을 체험한 시인인 사이교를 기억하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48) 前掲, 『平家物語』.

49) 前掲, 『平家物語』.

50) 前掲, 『平家物語』.

51) 前掲, 〈述懷歌〉.

52) 前掲, 『西行』, 『日本史辭典』, 角川書店, 1989, 389쪽. 사이교는 대를 이은 무사 가문 출신으로 상황을 경호한 이른바 ‘北面의 무사’였는데, 23세 때 돌연히 처자를 남겨두고 출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53) 前掲, 『山家集』, 446쪽. 천황이나 상황이 칙선한 가집에는 사이교가 지은 노래가 반드시 실렸다. 그 대다수가 이 가집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保元の 난 때 시코쿠[四國]로 유배당하여 그곳에서 죽은 스토쿠[崇徳]상황의 묘소를 찾아가간 사이교가 읊은 다음 노래가 유명하다. “마쓰야마의 파도 풍경은 변함이 없건만, 상황께옵서는 흔적도 없이 가버리셨구나(松山の波の景色は変わらじをかたなく君はなりましにけり).”

### 3. 사야카 시가에 있어 편집자의 유학용례

#### 1) 편집자 김한조와 개정자 이가순의 유학적 용례

앞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사야카의 시문 특히 〈술회가〉에는 여기저기 유학적 용례가 아로새겨져 있다. 그 중 전술한 편집자 김한조<sup>54)</sup> 및 개정자 이가순<sup>55)</sup>의 유학적 용례와 유사한 용례<sup>56)</sup>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여기서 편집자와 개정자의 용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한조(A) “人之秉彝 不以中夏人而有余 … 故中夏之人終於禮義 …”<sup>57)</sup>

김한조(B) “只在於慕中夏之衣冠文物 … 子孫 … 遺擇禮儀之邦 …”<sup>58)</sup>

이상 김한조 경우의 용례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i) 모든 인간의 도道는 중하中夏의 풍속(예의)이 되어야만 한다. (ii) 중하의 문물(풍속)을 흠모하여 자손들 또한 거기에 따라 살 것을 바란다는 것이다.

이가순(C) “三綱五常文質三統之區也 有君父子夫婦長幼朋友之倫焉 … 若慕夏公之向化歸義在所進乎 在所人心乎”<sup>59)</sup>

이가순(D) “其初到見吾邦小中夏之盛雖在干戈倥傯之中 而人心也 風俗也 衣冠文物也 … 果協慕中夏宿願曉諭一書講和一概說盡至誠歸義之意蓋其歸義也 … 惟以中夏之爲古聖人之國也.”<sup>60)</sup>

54) 前掲, 金漢祚

55) 前掲, 李家淳

56) 前掲, 〈述懷歌〉

57) 前掲, 金漢祚, 例A.

58) 前掲, 金漢祚, 例B.

59) 前掲, 李家淳, 例C.



한편 이가순의 경우는 (i)삼강오륜(仁智禮孝忠)의 사고에 의지해야만 한다. (ii)중하의 변성함을 처음 보고는, 전장터에서도 의관문물(衣冠文物)의 풍속을(잃어버림 없이) 행한다는 것이다.

김한조와 이가순의 이와 같은 유학적 용례가 사야카의 유문 중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통상 편집자와 개정자에 의한 문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이런 용례와 유사한 용례를 사야카 시문 속에서 추출한 유학적 용례와 대비시켜 볼 필요가 있다.(이하 일람표 등에서 이 두 사람의 용례를 나타낼 때, 김한조의 용례는 A 혹은 B, 그리고 이가순의 경우에는 C 혹은 D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2) 시문 속의 유학적 용례

앞서 <잉방시>·<남풍유감>·<우흥>·<우회>·<도최의사>·<술회가> 등의 시문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시문들은 <술회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시로 유학적 용례와는 전혀 무관하다. 오직 장편서사시인 <술회가>에서만 거의 모든 문단에 유학적 용례가 산견할 따름이다.

다음 <표 3>은 <술회가>의 각 문단별 유학용례를 행 단위로 열거한 것이다.

<표 3> <술회가>의 유학용례

文段	行	用 例	關 連 史 料
1	3	南蛮左衽鄉 生長于鳩舌之風	「慕夏堂記」·「賜姓名謝疏」
	4	中夏之佳麗文物 願一見之	「曉諭書」 金漢祚A
	9	非義興師之意 心中雖知之	「鹿村誌」·「講和書」
	10	東土禮儀之邦 欲爲一玩	

60) 前掲, 李家淳, 例D.

文段	行	用 例	關 連 史 料
2	26	衣冠歲歲 禮樂跄跄	金漢祚A
	28	非三代之風俗乎 東魯至治此也	
	29	大中夏如此乎 小中夏可羨	「慕夏堂記」A
	30	禮樂彬彬 民物亦燦爛	A
	31	中心恍惚 如狂如癡	
	32	用夏變夷之心 藹然湧出	A
	37	孔孟之道德禮儀 親皆見之	「慕夏記」李家淳C
	38	拋棄侏俚之俗 漸進揖讓之風	A
	39	待東邦聖君 享萬古泰平	
3	44	是伊誰之功 皆聖上之德	「賜姓名謝恩疏」
	53	罔極之聖恩兮 逮于此微軀矣	「賜姓名謝恩疏」
	67	休哉聖恩 深之罔極	
	68	此身雖爲屑 豈報此恩乎	
	69	竭忠報恩之道 必是沒策	
4	102	以聖上之神功 己爲殲賊乎雖	
	106	盡力于王民 是臣子之職分	
5	115	因見天門 門以防憂之策	
	116	余無才雖 豈不效死竭忠乎	「還賜牌 疏」
	127	而卒富貴不祥之語 以古言聞之矣	
	128	投托于東土 欽慕禮義	A
	129	而遺子孫 爲中夏之人	金漢祚B
	130	則富貴念外 功名亦意外	「還賜牌 疏」
	131	今日之富貴功名 千古所罕有	「還賜牌疏」·「賜姓名謝疏」
6	167	嗚呼神宗皇帝 已救東國	
	168	東國辺小 全毋報恩之道	
	172	禮義東方之貫号 至今今日歸於虛地	
	173	春秋大義姑捨 舊恩安敢忘之	「鹿村誌」
	181	四君子隨行 欲忝義魄忠魂	
	183	平生一片慕夏心 付托于誰手乎	A

文段	行	用 例	關 連 史 料
7	199	而紫陽及白鹿洞 卽朱夫子杖屨之地	『鹿村誌』
	200	趨賦道德場 相歟符合	『鹿村誌』
	201	是餘之後孫 豈不出講學人哉	『鹿村誌』B
	207	罔極兮三朝恩 疊疊蒙被	『鹿村誌』'蘆溪'
	209	遺有子孫 而爲聖人之氓	『鹿村誌』B
	217	孝悌忠信爲業 禮義廉恥成風	C
	218	子子孫孫相傳 務以和睦	
	221	卜居于友鹿村 而弄白雲明月	『鹿村誌』

\* 상기 용례 일람 중 난외(적용)에는 관련사료가 표시되어 있는데, A와 B표시는 김한조의 용례를 나타내고 C는 이가순의 용례를 나타낸다.

한편 이상의 유학 용어 및 용례가 사용된 행을 문단별로 정리하고 나아가 각 문단에 있어 용례 행의 접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 아래 <표 4>와 <표 5>이다.

<표 4> 유학적 용례사용 행수 및 비율

文段	使用用例行	段總行數	割合
第1	4	22	18%
第2	9	19	50%
第3	5	38	13%
第4	2	31	6.50%
第5	7	21	33%
第6	6	59	10%
第7	11	34	32%
第8	0	8	0
合計	44	232	19%

<표 5> 편자 및 개정자 용례 관련행

文段	關連行數A	同左B	同左C
第1	1	0	0
第2	5	0	1
第3	0	0	0
第4	0	0	0
第5	1	1	0
第6	1	0	0
第7	0	3	1
第8	0	0	0
合計	8	4	2
AB用 例用	(金漢祚)	C例	(李家淳)

관련용례 44행 중 편자 및 개정자의 용례와 가장 관련성이 많다고 보이는 행은 상기 <표 4>에서 잘 알 수 있다.

모든 인간의 도는 중하의 풍속(예의)이 되어야만 한다는 김한조의 용례A와 유사한 것이 8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김한조의 용례B와 유사한 것이 4개로 A사례의 절반 정도이다. 또한 개정자 이가순과 관련된 C사례는 2개밖에 안 된다. 김한조의 용례는 A와 B를 합쳐 12개로 <술회가>전체 시문 중 약 5% 정도이다. 이에 비해 이가순의 경우는 1%정도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 유학적 용례는 전체적으로 제2문단의 5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밖에는 제5문단과 제7문단이 32.3%였다. 그 가운데 김한조의 용례문과 유사한 문언의 행은 5개를 보여주는 제2문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제2문단이 김한조에 의해 집중적으로 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짐작케 해준다. 그 외 1개씩 나타난 수치는 뒤집어 말하자면 거의 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 3) 유사용례의 검토

모든 인간의 도는 중하의 풍속(예의)이 되어야만 한다는 김한조의 용례A<sup>61)</sup>의 논리와 동일하거나 혹은 근사하다고 여겨지는 <술회가> 중의 용례를 검토해 보자.

가령 4행의 “中夏之佳麗文物 願一見之(중하의 아름다운 문물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sup>62)</sup>는 구절에 있어 ‘중하의 아름다운 문물’은 김한조가 말하는 ‘중하의 풍속’과 같은 맥락으로 간주될 만하다. 그 다음 행에서는 “언젠가

61) 前掲, 金漢祚, 例A.

62) 前掲, <述懷歌> 4행.

이런 뜻을 알게 된다면 귀신도 감동할 것이다.”라고 말을 맺으면서 “한번 본다면”깊이 감동할 것이라 하여 중하 풍속에 대한 강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는 인간의 도는 중하의 풍속이 되어야만 한다는 취지와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衣冠歲歲 禮樂踰踰(의관이 매년 행해지고 예악도 살아 숨쉬고 있다).”<sup>63)</sup>는 26행 구절은 중하의 제도와 풍속이 매년 당연지사로 행해지며 예악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세계의 모습, 즉 “중하가 곧 사람의 도”라는 논리가 구현된 세계를 예시하고 있다. 나아가 29행의 “大中夏如此乎 小中夏可羨(대중하로서의 중국이란 바로 이러한 것인가. 소중하인 조선으로서는 부러워할 만하구나).”<sup>64)</sup>라는 구절은 그 앞 행에서의 “의관 제도”가 “3대나 이어질”뿐만 아니라 “동로東魯의 치세에 이르”고 나아가 “유구한 옛적부터 면면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중하의 도의 본가대원本家大元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고 볼 때, 김한조가 말하는 논리를 영원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30행은 이런 29행을 반복하고 구현시킨 같은 뜻의 구절이다. 32행의 “用夏變夷之心 藹然湧出(오랑캐의 가슴 깊이 중하의 풍속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솟아나옵니다).”<sup>65)</sup>라는 구절은 중하의 풍속에 깊게 젖어 있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김한조의 용례 A 그 자체의 의미를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8행의 “拋棄侏俚之俗 漸進揖讓之風(어리석고 무도한 풍속을 버리고 예양의 풍속으로 점차 나아간다).”<sup>66)</sup>는 구절은 오랑캐의 풍속을 벗어나 중하의 풍속인 예양禮讓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128행의 “投托于東土(예의지국인 동토에 몸을 위탁하여)”와 “欽慕禮義(예의를 따르고 흠모한다)”<sup>67)</sup>는 구절에서 “投托于東土”이란 다음이닌 ‘중하의 풍속’에 몸을

63) 前掲, 〈述懷歌〉 26행.

64) 前掲, 〈述懷歌〉 29·30행.

65) 前掲, 〈述懷歌〉 32행.

66) 前掲, 〈述懷歌〉 38행.

던진다는 것으로 “欽慕禮義”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183행의 “平生一片慕夏心 付託于誰手乎(평생 일편단심 중하를 흠모하는 마음뿐이다. 그밖에 의탁할 곳이 또 있으랴).”<sup>68)</sup>는 구절은 항상 중하를 흠모하는 마음뿐임을 표현하고 있어 “모든 도는 중하의 풍속에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마음을 읊은 것이다. 다음으로 김한조의 용례 B<sup>69)</sup>인 “중하의 문물을 흠모하여 자손들 또한 그 풍속에 따라 살 것을 소망한다.”와 유사한 용례를 들어 보자. 가령 129행의 “而遺子孫 爲中夏之人”([예양의 풍속을] 자손에게 남겨 중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sup>70)</sup>는 구절의 전후 맥락에서 보건대, 중하의 예양禮讓 풍속을 “자손에게 남겨 중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곧 “자손들 또한 중하의 풍속에 따라 살 것을 소망한다.”는 것으로 김한조의 용례와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209행의 “遺有子孫 而爲聖人之氓(자손에게 남길 것이 있으니 곧 성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sup>71)</sup>라는 구절에서 ‘성인의 나라’를 지칭함은 곧 중하의 예의 풍속을 자손들이 지키기를 바란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이 문장은 그대로 B용례의 뜻과 동일하다. 223행의 “生逢堯舜而自樂 有子孫如此奴(살아서 요순시대를 만나 스스로 기꺼워하고 자손도 그렇게 살게 한다).”<sup>72)</sup>고 하여 고래의 성인군자를 이상으로 삼아 지향함은 B용례의 “중하 문물을 흠모하는” 가장 숭고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손들도 그와 같이 살게 한다는 것은 실로 B용례의 후반부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끝으로 개정자 이가순의 용례 C에서 삼강오상(仁智禮孝忠)<sup>73)</sup>의 사상에 의

67) 前掲, 〈述懷歌〉 128행.

68) 前掲, 〈述懷歌〉 183행.

69) 前掲, 金漢祚, 용례B.

70) 前掲, 〈述懷歌〉 129행.

71) 前掲, 〈述懷歌〉 209행.

72) 前掲, 〈述懷歌〉 223행.

73) 前掲, 李家淳, 용례C.

지해야만 한다는 구절과 유사한 사례를 두 가지 들어보자. 가령 37행의 “孔孟之道德禮義 親皆見之(공자와 맹자의 道德禮義를 가까이 한다).”<sup>74)</sup>는 구절과 관련하여, 맹자는 주지하다시피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의 질서 및 인의·예지·효제·충신의 윤리를 설했는데, 이는 “孔孟之道德禮義”와 충분히 대응될 만하다. 또한 217행의 “孝悌 忠信爲業 禮義廉恥成風(효제 충신을 가업으로 삼아 예의엄치의 풍속을 이룬다)”<sup>75)</sup>는 구절은 쉽게 말하자면 삼강오상의 도덕과 예의 풍속을 말하는 구절과 대동소이하다.

서간문과 기록문에서는 개정과 가필이 이루어지기 십상인데, 개성이 강한 문구가 줄줄이 등장하는 시문에서는 상당한 장편시라 하더라도 관여의 여지가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김한조에 의한 개편집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애국시인 노계(蘆溪<sup>76)</sup>)의 영향에 의한 문구인 “망극한 성은聖恩” 운운하는 표현도 3행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김한조의 편집에 의한 문식을 일단 배제하고 나머지 유학적 용례만 검토하기로 한다.

#### 4) <술회가> 중 김한조 및 이가순의 유학용례와 유사한 용례 정리

앞에서 나는 사야카의 서간문, 소疏 등의 여러 기록문에 있어 편자 및 개정자의 유학적 용례를 사야카의 유고 중에서 추출하여, 그 편자와 개정자가 윤색한 용례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유학용례로부터 사야카의 유학사상을 검토함에 있어 그 준비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사야카의 시문에서 편자 및 개정자의 용례와 유사한 용례를추출하여 이상에서와 같이 검토할 수 있었다.

유사 용례는 각 문단에서 먼저 일반적인 유학용례를 선택하여 분류했다. 제1

74) 前掲, <述懷歌> 37행.

75) 前掲, <述懷歌> 217행.

76) 前掲, 蘆溪

문단에서 제7문단까지 함께 44용례들이 그것이다. 그 중 편집자 김한조 및 개정자 이가순의 유학용례와 유사한 용례에 관해서는, 김한조의 용례A인 “모든 인간의 도는 중하의 풍속(예의)이 되어야만 한다.”는 구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1문단 1행, 제2문단 5행, 제5문단 1행 등 도합 8개 사례를 들 수 있었다. 또한 김한조의 용례B인 “중하의 문물을 흠모하여 자손들도 그 풍속에 따라 살 것을 소망한다.”에 관해서는 유사한 용례가 제1문단 1행과 제7문단 3행 등 도합 4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이가순의 용례C인 “삼강오상의 사상에 따라야만 한다.”에 유사한 용례는 제2문단 1행, 제7문단 1행 등 도합 2개 사례를 들었다. 이리하여 총합 14개의 용례를 검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유사 용례는 제2문단에서 6개 및 제7문단에서 4개로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그밖의 다른 곳에서는 1개씩으로 제2문단과 제7문단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유학용례에 있어 비율면에서 보더라도 제2문단은 18행 중 9개 사례로 50%에 달하여 전체 중에서 가장 많으며, 또한 제7문단에서도 34행 중 11개 사례로 33%에 달하여 전체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편자와 개정자에 의한 윤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제2문단과 제7문단에 집중적으로 가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 4. 사야카의 시가에 나타난 유학사상

##### 1) <술회가>에 있어 편자 및 개정자의 유학용례를 제외한 나머지 유학용례

앞에서 『모하당문집』의 편집자 김한조<sup>77)</sup> 및 개정자 이가순<sup>78)</sup>의 유학적 용

77) 前掲, 金漢祚.



례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지적했었다. 본고에서는 그런 유사용례가 완전히 편집자 및 개정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일단 별개의 범주로 삼아 살펴보았다. 이 때 나머지 유학적 용례가 사야카가 생각한 유학적 용례에 가깝다고 보아, 사야카의 유학적 사고방식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나머지 유학적 용례가 나오는 부분의 시구를 행 단위로 골라 일람표로 정리한 것이 다음 <표 6>이다.

<표 6> 사야카의 유학적 용례

文段	行	残余之儒学的用例	適用
一	9	非義興師之意 心中雖知之	義B
	10	東土禮儀之邦 欲爲一玩	聖恩A
二	39	待東邦聖君 享萬古泰平	A
三	44	是伊誰之功 皆聖上之德	A
	53	罔極之聖恩兮 逮于此微軀矣	A
	67	休哉聖恩 深之罔極	A
	68	此身雖爲屑 豈報此恩乎	A
	69	竭忠報恩之道 必是沒策	A
四	102	以聖上之神功 己爲殲賊乎雖	A
	106	盡力于王民 是臣子之職分	B
五	115	因見天門 門以防憂之策	B
	116	余無才雖 豈不效死竭忠乎	B
	127	而卒富貴不祥之語 以古言聞之矣	C
	130	則富貴念外 功名亦意外	C
	131	今日之富貴功名 千古所罕有	C

78) 前掲, 李家淳.

文段	行	残余之儒学的用例	適用
六	167	嗚呼神宗皇帝 已救東國	A
	168	東國辺小 全母報恩之道	A
	172	禮義東方之貫号 至今今日歸於虛地	
	173	春秋大義姑捨 舊恩安敢忘之	B
	181	四君子隨行 欲忝義魄忠魂	B
	183	平生一片慕夏心 付托于誰手乎	
七	199	而紫陽及白鹿洞 卽朱夫子杖屨之地	
	200	躋歟道德場 相歟符合	B
	207	罔極兮三朝恩 疊疊蒙被	A
	218	子子孫孫相傳 務以和睦	
	221	卜居于友鹿村 而弄白雲明月	B
	222	義皇化之民歟 葛天氏之民歟	
	224	平生所願 箇箇成就	

위 일람표의 용례는 도합 27개 사례인데, 그것을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성상(국왕·군주)의 은의恩義를 느껴 충성을 읊은 문구의 용례로 11개 사례를 들 수 있다. 즉 제1문단 10행, 제2문단 39행, 제3문단 44·53·67·68·69행, 제4문단 102행, 제6문단 167행과 168행, 제7문단 107행이 그것이다 (<표 6>의 분류에 있어 '君恩' 관련). 둘째, 사야카의 군주(군신관계)·민민·국가 등에 대해 의義로써 대처하는 9개의 용례를 들 수 있다. 즉 제1문단 9행, 제4문단 106행, 제5문단 115행과 116행, 제6문단 173행과 191행, 제7문단 199·200·221행이 그것이다(<표 6>의 '의' 관련). 셋째, '예기'<sup>79)</sup> 등과 관련된 용

79) 前掲, '禮記'

례로 3개 사례를 들 수 있다. 제5문단 127·130·131행이 그것이다(〈표 6〉의 ‘예기’ 관련). 넷째, 그밖의 일반적인 용례 혹은 자손에 대한 교훈적인 유학용례로는 제6문단 172행, 제7문단 218·222·224행 등이 있다(〈표 6〉의 ‘일반·자손’ 관련).

## 2) 사야카 시가에 나타난 유학사상의 검토

전술한 애국(우국) 시인 ‘노계’<sup>80)</sup>의 영향이 짙게 드러나는 〈술회가〉 시문의 첫 번째 사례는 53행의 “罔極之聖恩分 逮于此微軀矣”, 67행의 “休哉聖恩 深之罔極”, 207행의 “罔極兮三朝恩 疊疊蒙被”인데, 이것들은 사야카가 노계의 애국적 시문에 감동하고 공명해서 쓴 것으로 여겨진다. 즉 군주의 성에 대한, 이른바 사야카에의 처우(성명과 관위 직계 수여)에 대한 깊은 은의와 경애가 담긴 크나큰 감격의 마음을 읊은 것이라 보여진다. 둘째, 국경 수비대 시절과 관련하여 115행의 “防憂之策”과 116행의 “豈不效死竭忠乎”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충의를 다함으로써 〈잉방시〉<sup>81)</sup>에 나오듯이 만주 국경에서의 10년간에 걸친 경위警衛<sup>82)</sup>의 길을 걷는다. 이와 같이 국가에 몸을 바친다는 전례 없이 희생적인 사야카의 충의가 국왕의 눈에 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정헌대부正憲大夫’ 정2품이라는 대신급의 서위를 하사받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보상으로 여겨졌다. 이는 전시에 전투를 격려하기 위한 임시적 보상과는 다른, 평시 상황에서 행해진 파격적인 보상이었다고 보인다. 셋째, 귀향한 이래 11년 뒤 일어난 갑자년의 변란에서는 국왕까지 피난할 정도의 대란이었던 ‘이괄의 난’<sup>83)</sup>을 진압했다. 그 때 전술했듯이

80) 前掲, 蘆溪

81) 前掲, 〈仍防詩〉.

82) 前掲, 〈仍防詩〉年譜.

사야카는 공적으로 하사받은 전지를 반납했다. 이는 이괄의 부장副將 ‘서아지徐牙之’의 장원이었는데, 이를 수어청守禦廳의 둔전으로 기진했던 것이다. 이 때 사야카가 올린 상소에서는 “신하가 반란을 진압하는 것은 신하의 직무이며 공적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도리이므로 국왕이라 해도 그 이치에 따라야 할 것을 설하고 있다. 전술한 애국(우국)의 념이 점차 발전하여 이와 같이 성군을 밀받침하는 바, 106행의 “盡力于王民”이라는 구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신하와 백성이 함께 서로 도와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발전한 것이다. 넷째, 그 후 12년 뒤인 1636년에 ‘병자호란’<sup>84)</sup>이 발발하여 국왕이 피난하는 국가적 위기하에서 만주로부터 오랑캐족이 침입했을 때 사야카가 다시금 출격하게 된다. 이 때 그는 66세의 고령을 무릅쓰고 출진하여 전장을 헤집고 다니면서 구름처럼 물려드는 적병을 쓰러뜨리고 사력을 다하여 싸웠는데, 갑자기 강화조약이 성립하게 되어 그간 올렸던 전과도 무위로 돌아가 버림으로써 실의에 차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실의의 심정을 나타낸 시문으로 “東國邊小 全母報恩之道”라든가 172행의 “禮義東方之貫号 至今今日歸於虛地”라는 구절을 들 수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춘추의 대의를 고사姑捨한 것”이라 하여 스스로를 국가의 수호를 위해 진력하는 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181행의 “四君子隨行 欲參義魄忠魂”이라고 표현하여 끝맺고 있다.

다시 말해 사야카는 당초 조선에 상륙했을 때 9행의 “非義興師之意”라 하여 일본의 침략전쟁이 의롭지 못한 것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임진왜란이 끝난 뒤 115행의 “防憂之策”에서 신하의 ‘의’를 읊고 있다. 나아가 ‘이괄의 난’<sup>85)</sup>에서는

83) 前掲, 「還賜牌疏」.

84) 前掲, 「年譜」.

85) 前掲, 「還賜牌疏」.

군신관계의 '도리(理)' 즉 국왕이라 해도 군신의 도에 따라야 한다고 읊었다. 또한 '병자호란' 때는 '춘추의 의'를 언급하면서 "盡力于王民"과 더불어 국가 및 사회를 지탱하는 '의'의 마음(魄)을 품기에 이른다. 또한 사야카가 4대에 걸친 군주를 섬긴 것은 "義魄忠魂"의 정신이며, 이런 정신을 뒷받침한 것은 199행의 "紫陽 白鹿洞朱夫子杖屨之地"이자 200행의 "體歟道德場"이라고 읊고 있다. 그리고 그가 조정에서 수여받은 수많은 영에는 127행의 "卒富貴不祥之語"라 하고, 또한 '예기'<sup>86)</sup>와 '가훈'<sup>87)</sup>에서처럼 130행의 "則富貴意外、功名亦意外"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자손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 3) 사야카의 유학용례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때 전장에 있어 사야카의 활약 및 첩포를 보급하여 정유재란 때 전력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크게 공헌한 공적으로 인해 수차례 받은 현창에 부응하고자, 사야카는 당시 정치군사 지도자들이 규범으로 삼았던 유학의 수학에 힘쓰게 되었다.

이는 당시 전쟁체험의 시가에서 성은에의 한없는 충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제1문단에서 제3문단까지가 그것이다. 이런 경향이 본격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잉방소'<sup>88)</sup>에 나오듯이 자신을 채찍질하여 정진했던 10년간의 국경수비 시절이었다. 이 기간 중 그는 선조의 서거 때 잠시 서울에 가 장례식에 참석한 것을 빼고는 고향에도 가지 않은 채 임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 기간 중에 그는 자기 자손을 육성하는 일에 대해서조차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데 『모하당기慕夏堂記』<sup>89)</sup>를 쓴 시점에서 1601년 만주국경 수비대에 임

86) 前掲, 『禮記』.

87) 前掲, 『家訓』.

88) 前掲, 『仍防疏』.

직하기 이전에는 자손이 없었는데도, 그 유문에 의하면 “使子孫慕於中夏” 혹은 “性爾子孫” 운운하면서 있지도 않은 자손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하당기’의 기재가 모순된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는 자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생각건대 사야카는 정치를 취한 후 2년 뒤에는 10년간 집을 비웠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런 문제가 주제는 아니므로 이 이상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

어쨌거나 국경에서 거친 이민족과 오랑캐족을 상대로 10년간을 보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창’을 베개삼아 밤을 지새우는 한편, 때로는 압도적이고 강대한 무력을 보이고,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고루 쓰면서 적대세력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었다. 일찍이 의령이나 울산 전투 등과 같은 맹공과 혈전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곳이 만주 국경지대였다.<sup>90)</sup> 때로 울산이나 순천 등에서 강화사講和使로 활동한 적도 있는데,<sup>91)</sup>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활동 또한 국경지대에서는 일상다반사로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사야카가 귀환한 1613년부터 정묘호란(1637)까지의 14년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후임 경위라든가 현지 함경도의 통치자들은 사야카에게서 호족과의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노하우를 잘 이어받아 적절히 시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왕 및 측근들은 이 점에도 착목하여 ‘팔자의 어서[八字御書]와 함께 ‘정헌대부正憲大夫’의 직계위를 수여했다.<sup>92)</sup> 당시 이미 43세의 장년에 달했지만 아직 후손은 없었다. 제4문단으로 돌아가자면, 인조 때 이괄의 난이

89) 前掲, 『慕夏堂記』.

90) 의령전투에 관해서는 1597년 사야카가 金應瑞 부대 및 명나라 군대와 함께 일본군을 급습한 전과를 기록한 다음 기사를 참조할 것. 宣祖實錄 30年 丁酉(1597年) 11月 己酉(22日)條 “...同知要叱其 兪知沙也可加 降倭念之 各斬一級...” 또한 울산 공성전에 관해서는 前掲, 『慕夏堂文集』, 111쪽 참조.

91) 『大河內朝鮮物語』, 『高麗歸陣物語』.

92) 『謝正憲疏』, 『慕夏堂文集』, 29쪽.

일어났다. 대부분의 시구는 “還賜牌疏”라고 대응하고 있다.<sup>93)</sup> 단, 문구만 보자면 제5문단의 “국경 경위에 관한 시문의 용례에 있어 ‘還賜 牌疏’의 116행 및 130행의 용어도 약간 보여진다.”<sup>94)</sup> 이 이괄의 난 때 사야카는 부장 아지의 무력이 강대했기 때문인지 책략을 써서 진압한 후 아지의 장원 전지를 하사받는데, 그는 이를 안이하게 하사받았다고 느껴 “진압은 신하의 의무로서 특별히 공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 하여 전지를 반납, 수어청守禦廳의 둔전으로 기진했다. 이를 ‘소疏’에 있어 군왕이란 신하와의 관계를 군왕측에서 해치면 안 되며 그것이 ‘도리’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이괄의 부장 아지의 전지는 국법에 의해 몰수해야만 하며 나라에 수납되어야만 할 성격의 토지라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급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sup>95)</sup> 그러나 이는 시문에는 나오지 않으며, 유일하게 106행의 “盡力于王民”이라 하여 국왕과 백성에게 힘을 다한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나온다. 이 문구는 ‘국왕의 백성’이라고 읽기 보다는 ‘국왕과 백성’으로 보아 ‘나라 전체, 사회 전체를 지켜야만 하는 일’에 진력한다고 읽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사야카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지만 강화가 이루어져 헛수고로 끝나 산중에 은거하게 된다. 하지만 ‘춘추의 대의’ 및 ‘4대의 군주를 수행’한 것은 “의백충혼義魄忠魂”이었다고 읊는다.<sup>96)</sup> 그러나 제7문단 ‘가훈家訓’을 남기고 ‘녹촌지鹿村誌’를 기록했으며 ‘술회가述懷歌’를 읊으면서 인생을 매듭지었다. 그는 자신이 백록동白鹿洞 서원에서 ‘주부자朱夫子’와 교분하면서 ‘도덕장道德場’에 처해 있었다고 노래했다.<sup>97)</sup>

93) 前掲, 『還賜牌疏』.

94) 前掲, 『還賜牌疏』.

95) 前掲, 『還賜牌疏』.

96) 前掲, 〈述懷歌〉.

97) 前掲, 〈白鹿洞淵源〉.

즉 이 시문에서 사야카의 유학사상은 조선에 상륙한 초기에 “불의한 군대를 일으킨” 것에 대한 저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나아가 군신으로서 “동방지나東方之那에 몸을 두고 싸운다.”든가 “성왕에게 포상을 받아”, “국경 방위에 몸을 바치고” 나아가 크나큰 직계위를 수여받아 더할 나위 없는 군을 느꼈다. 10수년 후 이괄의 난을 진압하여 전지를 하사받았지만, 신하로서 의무를 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그 전지를 반납하고 수여청의 둔지로 기진했다. 이 시점에서 사야카는 자신의 의무가 나라를 위해 진력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여겼고, 그후 두 차례에 걸친 호란에 참전했다. 이런 업적을 ‘녹춘지’ 및 ‘가훈家訓’과 <술회가>에 적고 있는데, 그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춘추의 대의’와 ‘의백충혼’이라는 구절에 나타나는 ‘의’와 관련된 말에 잘 나타나며,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바친다는 생각으로 귀결되었다고 여겨진다.

## 5. 결론

사야카의 시가에는 <잉방시>·<남풍유감>·<우흥>·<우회>·<도취의사> 등 5편의 단시와 <술회가>라는 232행의 장편서사시 1편이 『모하당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문들에 관한 연구로는 이동영李東英의 『모하당연구慕夏堂研究』(1966), 권영철權寧徹의 『모하당시가연구慕夏堂詩歌研究』(1967), 정중환丁仲煥의 『모하당금충선慕夏堂金忠善의 술회록述懷錄』(1968), 진동혁秦東赫의 『모하당가고慕夏堂歌考』(1974), 윤영옥尹榮玉의 『모하당慕夏堂의 문학文學』(2001) 등 5편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평가는 대체로 귀화인의 시가작품으로서는 일대 서사시로서 희귀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말해진다. 또한 이국인 출신으로서 국어 가사의 시조형식을 사용하는 등 용케도 조선말을 익혔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 줄렬한 표현도 눈에 띠고 예술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그의 시가에는 동시대의 전쟁을 체험했던 저명한 시인 '노계'의 영향이 가장 짙게 나타나 있으며, 그밖에 한음 이덕형이라든가 송강 정철과의 교류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송강의 <태평사太平詞> 및 <선상탄船上嘆> 시문의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사야카가 자라난 일본사회에 있어 그에게 영향을 준 동시대의 작품은 거의 없지만, 헤이안시대 말기인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귀족정치로부터 무사정치로 전환되던 시기에 큰 전란이 있었다. 그 전란을 묘사한 장편서사시인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는 14~16C까지 비파법사琵琶法師라 불린 방랑시인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또한 무가 출신의 사이교[西行]라는 유명한 가인도 『산가집山家集』라는 와카[和歌]집을 남겼다. 나라[奈良]시대에서 전국시대에 걸친 시기에도 와카(5,7,5,7,7조의 31음절) 형식의 정형단시가 윤택되었으며, 이것이 무사적 교양의 하나로 관습화되었다. <술회가>의 전체적인 시조詩調로서는 전쟁을 나타내는 용맹성, 군주의 은혜에 대한 성심, 전투의 무상함 등 이렇다면 음과 양의 양측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음의 측면에서는 『헤이케모노가타리』에 나오는 '무상'과 매우 흡사한 '무정無情'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는 불교의 영향에서 비롯된 '제행무상諸行無常'과 같은 기분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보건대 사야카가 일본의 와카라는 시작詩作 관습으로부터 조선사회 지식인들의 한시를 짓는 관습으로 녹아들어갔다 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앞에서 사야카가 남긴 많은 글들에 『모하당문집』의 편자 김한조 및 개정자 이가순에 의한 문식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그런 영향을 차지한 나머지 시문에 있어 유학적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사야카의 유학사상을 검토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사야카 시문에 있어 유학적 용례를 특히 장편시인 <술회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용례들은 <술회가>의 시문 232행 가운데 44행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편자 및 개정자의 영향이 짙게 나타났다고 보이는 용례로 김한조

관련 12사례와 이가순 관련 2사례를 들 수 있었다. 이를 제외한 27개 용례는 대략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군주에의 은의를 나타낸 용례가 11행, 둘째, ‘의’를 중심으로 한 군신관계와 국가 및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친다는 용례가 9사례, 셋째, ‘예기’ 관련이 3사례, 넷째, 기타 일반적인 용례가 4사례였다. 사야카는 유학을 수학하면서 조선에 건너온 22세 때부터 66세 때 병자호란에 출진하기까지 44년 동안 거의 무인으로서 생애를 보냈다. 그는 늘 수백 명에서 2천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전투에 임한 무장이었다.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한문체와 시조체의 기록문·상소문·서간문·시문 등의 글을 남겼다. 『모하당문집』 편자 및 개정자의 영향을 차치한다면, 그의 사상과 사유는 초기에 신하로서의 충의를 함축한 ‘의’로부터 국가·사회·백성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의’의 사유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테면 그의 시문 중 “춘추의 대의”라든가 “盡力于王民” 또는 “義魄忠魂” 등 일련의 ‘의’ 관련 표현에서 이런 ‘의’의 사유를 읽어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사야카는 이퇴계 학파의 계열 중 심학파에 속한 백록동서원 좌주 우성범 일문에게 유학을 배웠는데, 그 내용은 아직 명확치 않다. 그가 남긴 글 중 〈술회가〉는 사야카 사후 156년 뒤에 간행된 『모하당문집』에 실려 있는데, 그 가사의 37행 “孔孟之道德禮義”, 217행 “孝悌忠信爲業” 등의 유학용례는 당시 시점보다 40년 뒤에 유학자 이가순에 의해 윤색되었다는 점을 앞서 지적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사야카의 상관이었던 김응서金應瑞는 그의 서간문에서 이가순의 유학용례와 동일한 “三綱五常…仁義禮智孝悌忠信”이라는 표현을 적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 김응서가 쓴 서간문이 맞다면, 이는 동시대의 무관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야카 또한 그런 표현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했을 것이다. 또한 〈술회가〉 192행의 “謝別塵世 入于山中”이라는 구절은 사야카가 병자호란 이후 이퇴계처럼 산림에 은거하면서 자신이 배운 것을 읊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그의 유학적 사고가 얼마나 고양된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해 준다. 그런데 일본인 출신인 사야카의 사고방식 한가운데

있던 '의'의 사고는 일본 헤이안시대 이래 무사들 사이에서 널리 존숭의 대상이 되었던 말이기도 했다. 요컨대 그런 일본적 '의'의 관념과 조선유학을 배우면서 익힌 조선적 '의'가 융합되어 사야카의 '의' 관념이 형성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생각건대 당시 귀화인으로서 매우 드문 사례였던 사야카의 유학 사상에 대한 탐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                                |
|----------------------------|--------------------------------|
| • 2011. 10. 28 : 논문투고      | • 2011. 11. 15 ~11. 25 : 심사    |
| • 2011. 11. 30 : 수정완료 후 제출 | • 2011. 12. 06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 참고문헌

- 貫井正之, 『秀吉と戦った朝鮮武將』(六興出版, 1992)
- 掘勇雄, 『林羅山』(吉川弘文館, 1990)
- 宮島敬一, 『戰國期社會の形成と展開』(吉川弘文館, 1996)
- 宮島敬一, 『戰國期社會の形成と展開』(中世史研究選書, 吉川弘文館, 1996)
- 權寧徹, 『古詩歌 研究』(慶山大學校出版部, 1997)
- 權五鳳, 『李退溪家書の總合的研究』(中文出版社)
- 今谷明, 『戰國大名と天皇』(講談社學術文庫, 1992)
- 金谷治譯, 『大學·中庸』(岩波文庫, 2010)
- 金文基, 『蘆溪先生文集』, 國譯蘆溪集(1999)
- 金思燁, 『松江歌辭』(文豪社, 1959)
- 金周坤, 『韓國詩歌의 忠孝思想』(國學資料院, 2000)
- 金倉圭, 『蘆溪詩文學 原典資料集成』(図書出版, 2006)
- 金倉圭, 『蘆溪詩評釋』(図書出版, 2008)
- 大濱皓, 『朱子の哲學』(東京大學出版會, 1988)
- 藤堂明保監修, 大島晃譯, 中國の古典『孟子』(學習研究社, 1983)
- 藤堂明保監修·麥谷邦夫譯, 中國の古典『老子·列子』(學習研究社, 1983)
- 柳成記, 『懲忿錄』卷1~16, 壬辰倭亂資料叢書(國立晋州博物館, 2000)
- 柳海春, 『長編叙事歌辭의 研究』(國學資料院, 1995)
- 李東英, 『儒蒙文學觀과 詩世界』(釜山大學校出版部, 1997)
- 李東喆, 『韓國詩歌의 研究』(國學資料院, 1995)
- 林仙默, 『時調詩學敍說』(檀大出版部, 1981)
- 林榮澤, 『李朝時代 叙事詩』상·하(永新文化社, 1992)
- 白川靜, 『孔子伝』(中央公論新社, 2003)
- 北島万次, 『加藤清正』(吉川弘文館, 2007)
- 史在東編, 『韓國叙事文學研究』I~IV(中央文化社, 1995)
- 山室恭子, 『中世のなかに生まれた近世』(吉川弘文館, 1991)

- 船岡誠, 『日本禪宗の成立』(吉川弘文館, 1987)
- 笹本正治, 『戰國大名と職人』(吉川弘文館, 1988)
- 蘇在英·張庚男 共編, 『金應瑞實記』壬辰倭亂資料叢書(國立晋州博物館, 2000)
- 小和田哲男, 『戰國武將の手紙を読む』(中公新書, 2010)
- 窪德忠, 『道教の神々』(講談社學術文庫, 1997)
- 尹榮玉, 『韓國古詩歌의 研究』(螢雪出版社, 1995)
- 張鐘元·上野浩道譯, 『老子の思想』(講談社學術文庫, 2001)
- 趙慶男, 『亂中雜錄』, 壬辰倭亂資料叢書(國立晋州博物館, 2000)
- 朝尾直弘他, 岩波講座『日本通史11』近世1(岩波書店, 1993)
- 朝尾直弘編, 『身分と格式』日本の近世7(中央公論社, 1992)
- 趙潤濟, 『韓國詩歌史綱』(乙酉文化社, 1960)
- 崔在穆, 『東アジア陽明學の展開』(ペリカン社, 2006)
- 崔在穆, 『李退溪心學と王陽明』(セイム社, 2009)
- 崔正如, 『韓國古詩歌 研究』(啓明大學出版部, 1989)
- 台灣中華書局, 『禮記·周禮·儀禮鄭註 I -2』冊一~六(台灣中華書局印行, 1969)
- 荒木見悟, 『中國心學の鼓動と仏教』(1995)
- 淺野裕一, 『墨子』(講談社學術文庫, 2004)
- 賴祺一編, 『儒學·國學·洋學』日本の近世13(中央公論社, 1993)
- 黃忠基, 『蘆溪 朴仁老研究』朝鮮文學研究18(國學資料院, 1994)
- 李東英, 『朝鮮朝 嶺南詩歌의 研究』(螢雪出版社, 1984)
- 『鄭澈松江 全集』(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4)

## Confucian Study Examples in Sayaka's Poems

Takao Fujiwara

(Kyongpook National Univ.  
Youngnam Culture Inst.)

When the Chosun Kingdom was invaded by the Japanese army, Chosun and Myung army was surrendered by Sayaka from the troop of Kiyomasa Kato. He was commissioned as a commander with the name of 'Kim, Chungson' and the title of high classed 'Chung-hun-dae-bu' by his distinguished services.

In this paper, his name is used as Sayaka which is able to be recognized by Japanese.

Until he became 66 years old, he went to the battle field. But he studied Confucian ideas, writing letters and poems during the peace time. Accordingly Confucian ideas are quoted in his writings frequently. According to his poems in Mohadang collection, five short poems and a long poem, 'Sul-fe-ga' as an epic were left.

In the theme of this paper, Confucian examples are found only in 'Sul-fe-ga'. Among of the 232 verses in 'Sul-fe-ga' the 41 verses of Confucian examples clearly can be seen. Among them, the 14 verses which were influenced by the editor, Kim-Hanjo and the reviser, Lee-gasun probably can be seen.

'Ui' in connection with Confucian examples is indicated to

Sayaka original idea ; watching the phrases of “Chun-chu-dae-ui”, “Jin-ryok-u-wang-min”, “Ui-baek-chung-hon”, at the point of going over the sea the loyalty of the subject can be seen in “Ui” thought of Sayaka; later gradually, perhaps, “Ui” thought of Sayaka in a broad sense had been developed.

Key word

: Confucian examples, Sul-fe-ga, editor Kim-Hanjo, reviser Lee-gasun, Ui thought

